

왜 팔각다층탑을 세웠을까



가람의 장면들

9

월정사 석탑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원래 오대산은 중국 산세상에 있는 청량산의 다른 명칭이다. 문수보살이 살고있는 곳이라 믿어졌던 중국 불교의 성지였던 만큼, 아직도 오대산 일대에는 백여개 소가 넘는 사찰들이 남아있다.

신라의 승려 자장율사는 당나라 유학시절에 오대산을 보았고, 귀국 후에는 신라의 진국토를 불국토로 만들기 위해 중국과 인도의 성지 이름을 전국의 유령산에 붙이기 시작했다. 중국의 오대산과 가장 닮은 곳을 강원도에서 발견했고, 문수보살의 주처로 삼아 이름을 붙였다. 후대의 승려들은 동서남북과 중앙 다섯 봉우리

실이 후원하는 화엄종 계통의 승려들을 전국에 파견하여 화엄사찰들을 세움으로써 세 나라의 불교를 하나로 통합하려 했다. 불교 예술 역시 신라시 예술을 전국에 확산시켰다. 목조건축물은 남아있지 않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신라시 삼층 석탑들을 유보시켜 전국의 석탑들을 통일된 양식으로 통일화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집권체제는 귀족들간의 왕권다툼으로 자체 분열되기 시작하여 지방에는 그 지역의 토착세력들이 힘을 키우기 시작하여 신라 체제의 붕괴를 초래했다. 이른바 호족이라는 지



오대산 월정사의 팔각구층석탑은 고려초기 거세게 불었던 지방자치, 복고운동의 증거물이다. 옛 고구려의 팔각 목탑전통을 되살리지만 섬세한 건축적 조각술로 만들어진 석탑으로 고려 건축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고려초 문화복고운동 증거물 고구려-고려양식 적절한 조화

(五臺)에 암자들을 경영했고, 이는 사방불 개념의 화엄신앙과 결합하여 더욱 복합적이고 상징적인 상징으로 승상되어 왔다.

강원도 경창 땅의 이 오대산을 관광하는 큰 길이 바로 월정사다. 신라 때 창건되어 명성을 떨쳐왔지만 6·25 전쟁을 겪으면서 전각들은 모두 불에 타버려, 현재의 건물들은 최근에 신축한 것들이다. 예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것은 단지 팔각구층석탑과 그 앞의 약방보살상 뿐이다. 그러나 이 한 기의 석탑은 신라말 고려초기 전국에 불었던 새로운 문화운동의 유력한 증거가 된다.

이른바 통일신라 시대말 경주의 왕권을 중심으로 중앙집권체제를 이룩하려던 시기였다. 경주 왕실은 정복자인 옛 고구려와 백제 지역에 지방관을 파견하여 직접적인 통치를 시행하고, 정치체제뿐 아니라 사상과 문화까지도 신라 일색으로 바꾸어 명실상부한 통일왕국을 이루려 했다. 예컨대 지역적 정서를 무시하고 신라왕

방의 유력세력들은 경주 왕실의 귀족적인 교풍불교를 배척하고 새로운 신종불교를 받아들여 사상적으로도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 지방 명주인 호족들은 자신이 지배하는 지역의 문화와 풍속을 존중하여, 옛 백제 땅에는 백제의 예술양식이, 옛 고구려 지역에는 고구려적 예술양식이 활발하게 부활되었다. 호족 연합체의 성격으로 건국된 고려 초기에는 이런 지역 자치적 전통이 더욱 성행할 수밖에 없었다.

가장 먼저 불교를 받아들였던 고구려에는 대형 사찰들이 많이 건설되었다. 지금까지 10여개의 가람터들이 발굴되었는데, 대부분 가람의 중심에는 팔각 목탑이 서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금당과 부속건물이 둘러싸여 독특한 배치법을 띠었다. 따라서 고구려 가람건축의 특징이라면 이른바 '1탑3금당'과 '팔각 다층목탑'의 전경이라 할 수 있다. 팔각탑은 백제나 신라에서는 볼 수 없었고, 신라 통일기에도 나타나지 않았

다. 그런데 고구려가 멸망한지 300여년에 지난 고려 초기, 옛 고구려 영토의 남한계산이었던 공창 오대산 말 월정사에 드디어 '팔각 다층탑'이 부활한 것이다. 비록 목탑이 아닌 석탑으로 부활했지만, 사라져 버렸던 것 같은 고구려의 팔각탑 전통이 다시 생명을 얻기 시작한 것이다. 월정사 뿐 아니라,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옛 고구려 땅의 가람터에는 팔각 다층석탑이 삼삼갈게 전하고 있다. 묘향산 보현사, 광양 영명사가 대표적인 예들이다. 모두 고려 초기에 조성된 것들로 월정사와 함께 예술계에도 지방 자치의 거센 바람이 불었던 시대를 증명하고 있다.

같은 시대, 옛 백제 땅에는 이른바 백제계 석탑들이 부활되고 있었다. 부여 땅에 있는 정림사지 오층석탑을 모델로 삼아 수많은 백제식 탑들이 조성됐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만 해도 30여기에 이른다. 또한 안동 의성 땅에는 백제로 만든 전탑들이 유행같이 세

워져 역시 또 하나의 지역적 문화 전통을 만들고 있었다.

중앙집권체제가 지방분권제로 바뀌면서, 예술과 건축도 지방 자치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신라말 고려초의 10~11세기는 새로운 사회를 맞아 새로운 건축을 활발히 모색했던 시대다. 그 흔적들을 우리는 각지에 남겨진 석탑들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일단은 각 지역의 옛 전통들을 부활하는 방향에서 전개됐지만,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월정사탑이 비록 고구려 팔각탑의 전통을 따르고 있지만, 가늘고 호곡한 비례, 섬세한 건축적 조각술, 작아진 규모 등은 고구려가 아닌 고려 건축의 특징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탑이 아닌 석탑으로 건축했다는 사실은 결국, 현대는 복고적이지만 내용은 현재적일 수밖에 없는 건축의 본질을 보여준다.

본질적인 것은 아름답고 감동을 준다. 월정사 팔각탑과 같이,

재정보다 '의지' 더 중요

사찰도서실도 포교공간... 건축불사 못지않아

사찰에는 법당과 각 전각들이 있다. 하지만 법당을 비쳐한 도서실은 찾아 보기 힘들다. 그러나 사찰이 있다 해도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찰 도서실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선 스님들이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문제.

우·리·절·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예산

공간과 관리 인력 그리고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부분 사찰에서는 예산을 이유로 도서실 만들기를 꺼려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 지금 꼭 해야 하는지 잘못 이해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사찰도서실은 의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사실 일선 관계자들이 재정적인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만 사찰 도서실 마련은 건축불사와 비교하면 불사도 아니다. 때문에 도서실 만들기에 재정을 운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사찰에 도서실이 없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법당과 불상을 조성하는 불사는 당연한 불사이고, 도서실을 마련하는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그릇된 의지가 도서실 만들기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한국불교의 미래를 한번쯤 고민해 봤다면 도서실 마련에 등을 돌리진 않을 것이다. 양서들이 사찰로 모여들어도 일선 사찰 주지스님들의 의지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사찰도서실 만들기의 일차적 주체는 주지스님의 의지가 결정적이다. 사찰도서실 만들기에 주지스님의 역할은 재상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바로 주지스님들의 의지가 사찰에 도서실을 만들수도 있고, 있는 도서실의 문을 걸어 잠글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지스님들의 의지에 신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가세한다면 사찰도서관 만들기는 손쉽게 진행될 것이다.

사찰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모아두고 빌려주는 곳만은 아니다. 신행과 포교의 장으로, 미래불교를 구현하는 중심으로,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문화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법당인 것이다. 이제부터는 건축불사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법도를 통해 불자들의 마음을 살피우는 도서관 불사에 더 큰 의지를 심어야 할 때다.

불서 1600권 기증
정병조 교수



"교학 발전·전범의 밑거름 됐으면..."

정병조 동국대 교수(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가 '사찰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캠페인에 불서를 기증했다. 기증한 불서는 5백여종 1천6백여권으로 신학·박사학위 논문등 불교학 전문도서들이 주종을 이룬다. 해외에서 간행된 각종 문헌도 포함돼 있다. 이 불서들은 대부분 정교수가 도서관장을 맡고 있을 때 기증받은 것을 모아 둔 것. 이밖에 논문, 자료집, 연구서 등도 풍부히 모았다. 사찰 도서실 만들기에 적극 환영의 입장을 표명한 정교수는 "언젠가는 보람되게 쓰일 줄 알았다"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두 보시 하겠다"라고 기증의 뜻을 밝혔다. 정교수가 기증을 원하는 곳은 승가대학(강원), 일반사찰이 아닌 학인들이 공부하고 있는 승가대학에 기증하기를 희망한 가장 큰 이유는 불교학 발전을 위해서다.

승가대학의 도서관이 공부할수록 불교학이 발전된다고 강조한 정교수는 "어떤 학교든지 도서관은 교수 강의실과 함께 학교가 갖춰야 할 기본요건이다"며 "사찰도서실 만들기 캠페인에 확대돼 승가대학은 물론 각 사찰에 도서실이 설립해 불교가 질적으로 성장하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도서실 추진 동산반야회

"1인 1불서 보시" 1천여권 수집

동산반야회(회장 김재일)는 최근 동산불교대학 2백여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1인 1불서 보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동산반야회는 7월까지 교육과정에 편입된 도서대를 설치키로 2백여권의 불서를 기증받고 있다. (사진) 동산반야회의 이같은 캠페인은 각 지방부도 확대돼 활기를 띠고 있다. 대구 영불선원에서는 동참의 뜻을 밝히고 1차적으로 1백여권을 보내왔다. 현재 동산반야회에 있는 불서는 약 1천여권. 하지만 공간부족으로 여가지를 옮겨져 있어 열람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번 캠페인이 확대되면 작은 도서실을 만들어 재학생들이 마음껏 열람하고 대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같은 종류의 불서가 많이 기증될 경우 미주에도 보낸다는 복안이다. 현재 미국 시애틀에는 동산불교대학(8기)을 졸업한 김승일씨가 홈페이지를 통해 불서읽기 운동을 펼치고 있어 이에 협조한다는 것이다.



연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 백화점

물부다피아와 함께 시원한 여름을...

천연옥을 원식 그대로 가공한 석공 건강속 방식으로 시원한 여름을

의기남양 공장이 새로 얻은 원석의 자연적 세계 최초로 빔을 가공한 석공 방식의 천연옥 가공과 건강 유익성으로 여름철 시원한(대나무 방식) 대용) 커피, 기온, 김치냉장고를 올려도 갈래도 뒤어주는 것으로 처리, 차량 냉방에도 사용가능

• 크기 30x40cm
• 원석 천연
• 연식 불투명
• 비리제 미끄럼방지 (무연탄+유아세라믹 처리)
• 가격: ₩9,000

더우십니까? 천연명상 방식으로 선 심태에 드세요.

국내 최초 인체공학적인 설계, 명상·명상·단련을 수반하는 수련서 비론 지서는 수련에 많은 효과를 준다. 명상이 부분로 놓게 하는 것은 인체의 균형과 장시간 앉아서 숙우와 취미에 역력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기존의 명상서나 책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련용 명상

• 크기 30x40cm
• 가격: ₩27,000

자비로움의 표현 불자들 모두가 함께 읽는 여름 필수 부다피아 티셔츠

• 재질 순면 100% (20수)
• 색상 흰색
• 인쇄 나일론제 (합리)
• 가격: ₩7,000

연꽃 지구촌

다가올 21C 불국토를 염원하며 연꽃속에서 피어나는 지구촌을 상징한 디자인

100% 이상 주문시 6,500원 단체·사찰형 인쇄에 드립니다.

자비연꽃나팔

지비의 법음이 온 누리에 울려 퍼져 희망의 미래를 나타내는 자비연꽃 나팔

천진동자 부채로 더위를 날려 버린다.

앞면 / 뒷면

30% 이상 주문시 단체·사찰형 인쇄에 드립니다. (₩700원/개당)

강행복 합죽선

• 강행복 합죽선은 학 기와, 민화 작품을 직접 양으로 보내 수공으로 제작합니다

• 가격: ₩100,000

우리 선조들이 출거그린 민화풍을 현대적 감각의 목판으로 재 해석 하였으며 길림한 연복 연암에 유유 자작하게 노니는 오리 한쌍을 풍요한 여백으로 표현하여 날마다 좋은 날을 기원 하였습니다

• 제작년도 1996년 / • 기법 목판화+채색 / • 판도수 1판 1색+채색색
• 재질 천수종지 / • 크기 53x16.5cm / • 판 500

비위속에 숨은 부처. 대지대비 비위속에 숨은 영감의 마소를 영상으로 보여 더위를 식힌다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 원종의 대승인 부처님상을 많이 조성하였고, 아름답고 성스러운 산, 특히 경주 남산은 불교의 예술적 정수를 상징하는 명산으로 믿어 수 없이 많은 마애불과 석불, 석탑이 조성되었다. 국보급 유물과 자연유물인 동해 동해의 유물들이 불국토를 화엄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려던 선민의 혼이 서한 실력을 남겼게 한다

(제작) 대정프로덕션
문화관광부 등록 제1호·구상 감독·합기체
성경시간 비위속에 숨은 부처 - 45분
비이형상 - 30분
• 가격: ₩13,000

숙면의 요인 중에는 베개선택도 중요한 요소! 한방 베개로 시원한 여름을...

• 곡중간 경우, 생활스트레스 등으로 잠자리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이불에 일어나는 것이 잦을수록, 피로가 누적되면 베개 교체도 한 것 같지 않고 늘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분에게

많은 수면을 하더라도 최고의 쾌면을 하고 싶은 수험생

• 목부터 통증이나 어깨결림으로 늘 고생하는 분에게
• 코골이 방지에 여러한 실재하고 안전한 해결책을 찾기위해 고심하신 분

• 가격: ₩30,000(1개) / ₩56,000(1세트)

물부다피아 쇼핑물 주문방법 • 전화: 02-732-1522 / 737-8881 • 팩스: 02-737-0697 • 인터넷: http://mall.buddhapia.co.kr